

보도시점 2023. 11. 29.(수) 19:00
(국제엠바고)

배포 2023. 11. 29.(수) 13:30

경제협력개발기구, '24년 한국경제 성장률 2.3% 전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 '23.6월 본전망과 9월 중간전망 대비 '24년 성장률 +0.2%p 상향 조정
- 취약계층 타겟팅한 선별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정책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1.29일(수) 11:00(프랑스 파리 기준, 한국시각 19:00, 국제엠바고)에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매년 2회의 본전망(6월·11월 OECD 회원국 대상), 2회의 중간전망(3월·9월 G20 대상) 발표

【(1) 세계경제 전망: <부제> Restoring Growth】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경제 성장세의 완만한 둔화를 전망한 가운데, '24년 상반기까지는 고금리 영향으로 회복이 제약되나, 하반기부터는 통화정책의 점진적 완화에 힘입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통화긴축과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추가적인 충격이 없는 한 대부분의 국가가 '25년까지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복귀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9%(9월 전망 대비 $\Delta 0.1$ p)로 전망하였고, '24년에 2.7%(9월과 동일)로 둔화된 후 '25년 3.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았다. 물가상승률은 주요 20개국(G20) 기준 '23년 6.2%(+0.2%p), '24년 5.8%(+1.0%p)로 완만히 하락한 후 '25년 3.0%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세계경제의 주요 상방요인으로 유가 하락, 노동인구 증가, 가계 초과저축 등이 제시되었으며, 하방요인으로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글로벌 교역 회복 지연, 통화긴축 영향 잔존 및 타이트한 금융여건 등이 언급되었다.

【(2) 한국경제 전망】

한편, 한국경제 성장률은 '23년 1.4%로 둔화(9월 전망 대비 $\Delta 0.1$ p)된 후, '24년 2.3%(+0.2%p), '25년 2.1%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내수 측면에서는,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투자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하나, 내년 하반기로 가며 내수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수출 측면에서는,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의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수출 개선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3년 3.6%로 둔화(9월 전망 대비 +0.2%p)된 후, '24년 2.7%(+0.1%p)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에너지·먹거리 가격이 부담요인이거나, 물가상승률이 점차 하락하면서 '25년(2.0%)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2%)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국경제 하방 요인으로선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 시 공급망 불안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반면 상방 요인은 예상보다 강한 세계경제 회복세와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이 언급되었다.

【(3)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하여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을 직접 타게팅한 선별적 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상품시장 규제 혁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식 개선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 등도 함께 권고하였다.

【(4) '24년 한국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등의 의미 및 평가】

① '24년 세계경제 성장률 유지(2.7%), 한국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2.1→ 2.3%)

그간 '24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조정은 대체로 유사한 방향으로 조정되었으나, 금번에는 세계경제 전망은 유지된 반면, 한국경제 전망은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①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 경기지표가 최근 시장의 우려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24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4.6 → 4.7%)된 영향과 ②최근 반도체 등 IT 업황 회복과 향후 개선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 주요 20개국 중 '24년 성장률이 9월 중간전망 대비 0.2%p 이상 상향된 국가는 단 4개국(한국, 미국, 튀르키예, 러시아)에 불과. 9개 국가는 오히려 전망치가 하향 조정

**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전체(38개국) 대상으로 볼 때에도, 6월 본전망 대비 '24년 성장률 전망이 0.2%p 이상 오른 국가는 5개국(한국, 미국, 멕시코, 폴란드, 코스타리카)에 불과

② 내년 세계경제·주요국 성장률은 올해 보다 하락, 한국은 대폭 개선(1.4→ 2.3%)

이는 글로벌 교역 회복(1.1 → 2.7%)에 따른 수출 개선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및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Delta 0.1 \rightarrow 0.6\%$), 네덜란드($0.2 \rightarrow 0.5\%$) 등도 내년도 성장률이 금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미국($2.4 \rightarrow 1.5\%$)과 프랑스($0.9 \rightarrow 0.8\%$), 스페인($2.4 \rightarrow 1.4\%$) 등 서비스업 중심 국가의 성장률은 금년 보다 둔화되었다.

* 한국 '24년 성장률 전망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위에 해당

** 주요 20개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에 해당하는 12개국 중 '23년 대비 '24년 성장률 증가폭이 가장 높음

③ 내년 물가상승률은 글로벌 비교 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2.7%)

'24년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2.7%)은 주요 20개국(5.8%) 및 경제협력개발기구(5.3%) 평균을 크게 하회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낮은 편에 속한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승한 (044-215-2710)
	경제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정동현 (044-215-2732)
		담당자	사무관	박영우 (044-215-2735)

참고 1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성장률, G20 국가)

(%, %p)	'22년	'23년 전망			'24년 전망			'25년 전망
전망시점		'23.9월	'23.11월	조정폭	'23.9월	'23.11월	조정폭	
전세계	3.5	3.0	2.9	△0.1	2.7	2.7	0.0	3.0
G20	3.2	3.1	3.1	0.0	2.7	2.8	+0.1	3.0
유로존	3.3	0.6	0.6	0.0	1.1	0.9	△0.2	1.5
호주	3.7	1.8	1.9	+0.1	1.3	1.4	+0.1	2.1
캐나다	3.4	1.2	1.2	0.0	1.4	0.8	△0.6	1.9
독일	1.8	△0.2	△0.1	+0.1	0.9	0.6	△0.3	1.2
프랑스	2.5	1.0	0.9	△0.1	1.2	0.8	△0.4	1.2
이태리	3.7	0.8	0.7	△0.1	0.8	0.7	△0.1	1.2
스페인	5.8	2.3	2.4	+0.1	1.9	1.4	△0.5	2.0
일본	0.9	1.8	1.7	△0.1	1.0	1.0	0.0	1.2
한국	2.6	1.5	1.4	△0.1	2.1	2.3	+0.2	2.1
멕시코	3.9	3.3	3.4	+0.1	2.5	2.5	0.0	2.0
튀르키예	5.5	4.3	4.5	+0.2	2.6	2.9	+0.3	3.2
영국	4.3	0.3	0.5	+0.2	0.8	0.7	△0.1	1.2
미국	1.9	2.2	2.4	+0.2	1.3	1.5	+0.2	1.7
아르헨티나	5.0	△2.0	△1.8	+0.2	△1.2	△1.3	△0.1	1.9
브라질	3.0	3.2	3.0	△0.2	1.7	1.8	+0.1	2.0
중국	3.0	5.1	5.2	+0.1	4.6	4.7	+0.1	4.2
인도	7.2	6.3	6.3	0.0	6.0	6.1	+0.1	6.5
인도네시아	5.3	4.9	4.9	0.0	5.2	5.2	0.0	5.2
러시아	△2.0	0.8	1.3	+0.5	0.9	1.1	+0.2	1.0
사우디	8.8	1.9	△0.4	△2.3	3.1	3.0	△0.1	4.7
남아공	1.9	0.6	0.7	+0.1	1.1	1.0	△0.1	1.2

참고 2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소비자물가, G20 국가)

(%, %p)	'22년	'23년 전망			'24년 전망			'25년 전망
전망시점		'23.9월	'23.11월	조정폭	'23.9월	'23.11월	조정폭	
G20	7.8	6.0	6.2	+0.2	4.8	5.8	+1.0	3.8
유로존	8.4	5.5	5.5	0.0	3.0	2.9	△0.1	2.3
호주	6.6	5.5	5.6	+0.1	3.2	3.4	+0.2	2.8
캐나다	6.8	3.6	4.0	+0.4	2.4	3.0	+0.6	1.9
독일	8.7	6.1	6.2	+0.1	3.0	2.7	△0.3	2.1
프랑스	5.9	5.8	5.7	△0.1	2.9	2.7	△0.2	2.2
이태리	8.7	6.1	6.1	0.0	2.5	2.6	+0.1	2.3
스페인	8.3	3.5	3.5	0.0	3.4	3.7	+0.3	2.3
일본	2.5	3.1	3.2	+0.1	2.1	2.6	+0.5	2.0
한국	5.1	3.4	3.6	+0.2	2.6	2.7	+0.1	2.0
멕시코	7.9	5.4	5.5	+0.1	3.9	3.9	0.0	3.2
튀르키예	72.3	52.1	52.8	+0.7	39.2	47.4	+8.2	31.6
영국	9.1	7.2	7.3	+0.1	2.9	2.9	0.0	2.5
미국	6.3	3.8	3.9	+0.1	2.6	2.8	+0.2	2.2
아르헨티나	72.4	118.6	124.0	+5.4	121.3	157.1	+35.8	62.4
브라질	9.3	4.9	4.6	△0.3	3.6	3.2	△0.4	3.0
중국	1.9	0.5	0.4	△0.1	1.3	1.0	△0.3	1.5
인도	6.7	5.3	6.1	+0.8	4.8	5.3	+0.5	4.2
인도네시아	4.2	3.7	3.6	△0.1	2.8	2.4	△0.4	2.4
러시아	13.7	5.2	5.8	+0.6	5.2	7.2	+2.0	5.3
사우디	2.5	2.5	2.4	△0.1	2.1	2.2	+0.1	2.6
남아공	6.9	5.8	5.9	+0.1	4.7	5.0	+0.3	4.6

참고 3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성장률, OECD 회원국)

(%)	'21년 실적	'22년 실적	'23년 전망	'24년 전망	'25년 전망
호주	5.2	3.7	1.9	1.4	2.1
오스트리아	4.7	4.8	△0.4	0.6	1.5
벨기에	6.9	3.0	1.4	1.1	1.5
캐나다	5.0	3.4	1.2	0.8	1.9
칠레	11.9	2.5	0.0	1.8	2.1
콜롬비아	11.0	7.3	1.2	1.4	3.0
코스타리카	7.9	4.6	5.1	3.5	3.6
체코	3.5	2.4	△0.3	1.6	2.1
덴마크	6.8	2.7	1.3	1.2	1.5
에스토니아	7.4	△0.5	△2.6	0.6	2.5
핀란드	3.2	1.6	0.0	0.9	1.8
프랑스	6.4	2.5	0.9	0.8	1.2
독일	3.1	1.9	△0.1	0.6	1.2
그리스	8.3	6.0	2.4	2.0	2.4
헝가리	7.1	4.6	△0.6	2.4	2.7
아이슬란드	4.5	7.2	4.9	2.0	2.3
아일랜드	14.8	9.5	△0.6	2.4	2.9
이스라엘	9.3	6.4	2.3	1.5	4.5
이탈리아	8.3	3.9	0.7	0.7	1.2
일본	2.2	0.9	1.7	1.0	1.2
한국	4.3	2.6	1.4	2.3	2.1
라트비아	6.7	3.4	△0.1	1.9	2.7
리투아니아	6.3	2.4	△0.4	1.7	3.1
룩셈부르크	7.2	1.4	△1.1	1.4	3.1
멕시코	5.8	3.9	3.4	2.5	2.0
네덜란드	6.2	4.4	0.2	0.5	1.1
뉴질랜드	6.1	2.3	1.6	1.3	1.9
노르웨이	4.2	3.8	1.1	0.7	1.3
폴란드	6.8	5.6	0.4	2.6	2.9
포르투갈	5.7	6.8	2.2	1.2	2.0
슬로바키아	4.8	1.8	1.1	1.8	2.4
슬로베니아	8.2	2.5	1.4	1.8	2.7
스페인	6.4	5.8	2.4	1.4	2.0
스웨덴	5.9	2.9	△0.5	0.9	2.6
스위스	5.4	2.7	0.8	0.9	1.4
튀르키예	11.4	5.5	4.5	2.9	3.2
영국	8.7	4.3	0.5	0.7	1.2
미국	5.8	1.9	2.4	1.5	1.7
OECD회원국	5.9	2.9	1.7	1.4	1.8
세계	6.3	3.5	2.9	2.7	3.0

참고 4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소비자물가, OECD 회원국)

(%)	'21년 실적	'22년 실적	'23년 전망	'24년 전망	'25년 전망
호주	2.8	6.6	5.6	3.4	2.8
오스트리아	2.8	8.6	7.7	3.9	2.5
벨기에	3.2	10.3	2.4	3.0	2.4
캐나다	3.4	6.8	4.0	3.0	1.9
칠레	4.5	11.6	7.6	3.9	3.4
콜롬비아	3.5	10.2	11.7	6.3	4.0
코스타리카	1.7	8.3	0.6	1.9	3.1
체코	3.8	15.1	10.7	3.1	2.3
덴마크	1.9	7.7	3.6	2.8	2.5
에스토니아	4.5	19.4	9.2	3.4	2.4
핀란드	2.1	7.2	4.5	2.2	2.3
프랑스	2.1	5.9	5.7	2.7	2.2
독일	3.2	8.7	6.2	2.7	2.1
그리스	0.6	9.3	4.3	2.8	2.4
헝가리	5.1	14.6	17.5	4.6	3.3
아이슬란드	4.4	8.3	8.6	4.2	2.9
아일랜드	2.4	8.1	5.3	3.1	2.6
이스라엘	1.5	4.4	4.3	2.7	1.9
이탈리아	1.9	8.7	6.1	2.6	2.3
일본	△0.2	2.5	3.2	2.6	2.0
한국	2.5	5.1	3.6	2.7	2.0
라트비아	3.2	17.2	9.4	3.1	3.3
리투아니아	4.6	18.9	8.8	2.0	2.1
룩셈부르크	3.5	8.2	3.1	3.4	2.3
멕시코	5.7	7.9	5.5	3.9	3.2
네덜란드	2.8	11.6	4.4	3.7	2.4
뉴질랜드	3.9	7.2	5.8	3.5	2.5
노르웨이	3.5	5.8	5.5	3.9	3.2
폴란드	5.1	14.4	11.8	4.7	3.7
포르투갈	0.9	8.1	5.5	3.3	2.4
슬로바키아	2.8	12.1	11.1	5.2	3.4
슬로베니아	2.0	9.3	7.5	4.8	3.2
스페인	3.0	8.3	3.5	3.7	2.3
스웨덴	2.2	8.4	8.6	3.8	2.2
스위스	0.6	2.8	2.2	2.1	1.5
튀르키예	19.6	72.3	52.8	47.4	31.6
영국	2.6	9.1	7.3	2.9	2.5
미국	4.2	6.5	3.9	2.8	2.2
OECD회원국	3.8	9.3	7.4	5.3	3.9

참고 5

'23.11월 「OECD 경제전망」 주요 내용

1

세계경제 전망

① [최근 동향] 회복 둔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완화 지속

- '22년 이후 러·우 전쟁 등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축적 금융여건이 조성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는 둔화
- 인플레이션은 전세계적 통화 긴축 및 상반기까지의 에너지 가격 안정 등으로 완화 흐름이나,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은 모습
- 코로나 이후의 세계교역 성장세 둔화, '22년 초부터의 정책금리 지속 상승으로 인한 제약적 금융여건도 성장세 둔화에 영향

② [전망] 세계경제는 '23년 2.9%, '24년 2.7%, '25년 3.0% 성장 G20 평균 물가상승률은 '23년 6.2%, '24년 5.8%, '25년 3.8%

- 세계경제는 '24.上까지는 둔화되나, '24.下부터는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회복세 소폭 개선 <'232.9→'242.7→'253.0%>
- (미국) 통화긴축, 고용 둔화로 내수 회복 흐름이 완만해지나, '24.下부터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점차 회복 <'232.4→'241.5→'251.7%>
- (유로존) 러·우 전쟁(에너지價 급등)으로 위축되었으나,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라 실질소득이 회복하면서 성장세 개선 <'230.6→'240.9→'251.5%>
- (일본)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 중이나, 향후 통화긴축 기조 전환으로 성장세는 점차 둔화 <'231.7→'241.0→'251.2%>
- (중국) 완화적 통화정책 및 인프라 투자가 수요를 보완하나, 소비·부동산 부진에 따라 성장률은 점차 둔화 <'235.2→'244.7→'254.2%>
- (인도) 서비스수출 및 공공투자가 경기를 지속 견인하고, '25년은 엘니노 종료 및 정책개혁 효과로 성장세 확대 <'236.3→'246.1→'256.5%>
- 세계 교역은 무역규제 강화와 같은 하방요인을 글로벌 수요 회복 등이 상쇄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 <'231.1→'242.7→'253.3%>
- 인플레이션은 식료품·에너지 부문의 추가 충격이 없는 한, '25년까지 주요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에 도달 <G20 '236.2→'245.8→'253.8%>

3 [향후 리스크] ① 지정학적 갈등, ② 세계교역 감소, ③ 통화긴축에 따른 금융시장·신흥국 불안, ④ 中 경기 둔화 등 하방요인 존재

- 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나, 세계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
- ② 선진국의 투자 회복이 더디거나, 긴축통화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교역 개선이 지연될 소지
- ③ 고금리가 지속되는 경우, 가계·기업의 부채 리스크 확대, 신용공급 감소 및 신흥국의 금융불안 야기 가능성
- ④ 중국의 부동산 부문 위기가 글로벌 수요 둔화로 파급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

※ 상방요인으로는 산유국 감산 철회에 따른 유가 하락, 노동 인구 확대, 초과저축의 소비 재원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을 언급

4 [정책권고] ① 제약적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② 재정건전성 확보, ③ 신흥국 거시안정성 제고, ④ 글로벌 교역 확대, ⑤ 기후 대응 등 권고

- ① 각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근원 물가가 높은 만큼, 당분간 제약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필요
- ② 팬데믹 이후 공공부채 증가, 정부부채 조달금리 상승 등 여건 악화 → 향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등 노력 촉구
- ③ 코로나 지원의 점진적 축소로 신흥국 재정 적자가 감소세이나, 부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세수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
- ④ 글로벌 공급망(GVC)의 재건, 서비스 교역에 대한 규제 완화, 국가간 디지털 연결성 제고 등을 통해 세계교역 확대 노력
- ⑤ 녹색 투자·혁신 강화, 탄소가격제 확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기준·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등 권고

◇ 성장률 '23년 1.4%(△0.1%p), '24년 2.3%(+0.2%p), '25년 2.1%
물가상승률 '23년 3.6%(+0.2%p), '24년 2.7%(+0.1p%), '25년 2.0%

* ()은 '23.9월 전망치 대비 조정폭

1 [최근 동향] 내수 회복 지연, 수출 개선, 물가 불확실성 상존

- 소비·투자는 고금리, 실질임금 개선 약화 및 주택시장 부진 등이 중첩되면서 회복 제약
- 수출은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 글로벌 수요 둔화가 하방 요인이나, 10월 통관수출이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라 증가
- 소비자물가는 10월에 에너지·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한 반면, 근원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 지속
- 고용시장은 역대 최고 고용률 및 최저 실업률을 보이며 양호

2 [전망] 성장률은 '23년 1.4%로 둔화 후, '24년 2.3%, '25년 2.1%로 반등 전망

- 수출이 반도체 수요 회복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24년 하반기부터 부채부담·인플레이 등 소비·투자 제약요인이 완화

* "Exports are set to pick up with a recovery in semiconductor demand. Elevated debt servicing burdens and inflation will continue to weigh on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in the short term, but demand should strengthen from the second half of 2024."

- 예상보다 건조한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에 상방요인으로 작용 가능

* "Stronger-than-expected global growth and easing geopolitical tensions would improve the economic outlook for the export-dependent Korean economy."

- 하방요인으로는 글로벌 금융불안 심화시 가계·기업 부채 부담 증가, 지정학적 위협에 따른 공급망 위협 가능성 등 존재

- 기준금리는 '23.1월 이후 3.5%를 유지 중이며, '24년 하반기까지 現 수준을 유지하고 '25년에 2.5%까지 점차 인하될 전망

* The policy rate is assumed to remain at the current level until the second half of 2024, before being cut gradually to 2.5% by 2025 as inflation approaches the 2% target.

3 [정책권고] ①재정건전성 제고, ②취약계층 타겟팅 지원, ③원활한 노동력 재배분 유도, ④일-가정 양립 제고, ⑤온실가스 감축 등

①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재정지출 압력이 '40년까지 GDP의 5%만큼 상승 전망(OECD 모형) → 재정건전성 제고 권고

* "Against the backdrop of rapid population ageing, spending pressures are set to increase by approximately 5% of GDP by 2040 according to the OECD long-term model, driven by pensions and health expenditure. Fiscal consolidation is key to meet this challenge."

- 재정준칙 및 연금개혁 등은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언급

② 최근 연장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더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지원방식을 제안

* "It would be better to target vulnerable groups more directly, notably by addressing gaps and weaknesses in the social safety net."

③ 상품시장 규제 혁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식 개선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 "Reducing the stringency of product market regulation by, for example, shifting to a comprehensive negative-list regulatory system and streamlining public support to SMEs would help to lower productivity gaps between large and small firms and reduce labour market dualism."

④ 육아휴직 지원 확대, 유연근무 확산 등 일-가정 양립과 여성 고용·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노력 강화 필요

* Policies should also focus on reconciling career and family, including increasing the take-up of parental leave and enabling more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to boost female employment and fertility.

⑤ 배출권거래제도와 기후 목표의 조화, 친환경 전력 공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 등을 제안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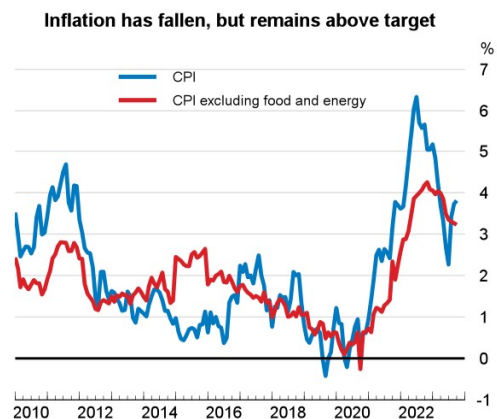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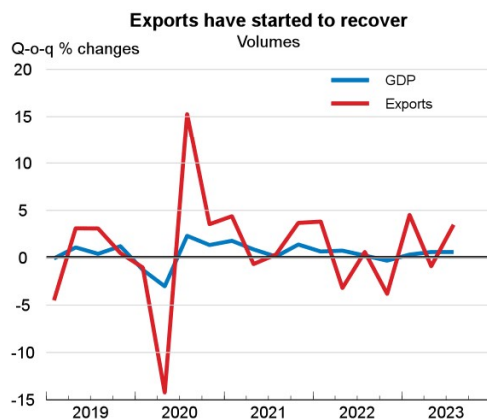
GDP growth is expected to ease to 1.4% in 2023, before rebounding to 2.3% in 2024 and 2.1% in 2025. Elevated interest rates and energy prices are weighing on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in the near term. Exports will strengthen as semiconductor sales recover. Energy and food prices have pushed up consumer prices, but inflation will gradually moderate and reach the target in 2025. Unemployment is set to increase from the current historically low level as weak demand reduces hiring.

The Bank of Korea has maintained the policy rate at 3.5% since January 2023 and signalled that monetary policy will remain tight for some time. Fiscal consolidation should proceed given rapid population ageing, and the proposed fiscal rule should be implemented. Support to households should increasingly address gaps in social protection schemes, including eligibility and enforcement. Structural reforms should facilitate the reallocation of labour and capital to address high productivity gaps.

Growth is weak, but there are emerging signs of recovery

Domestic demand remains weak, but exports have bottomed out. Real GDP grew by 0.6% in the third quarter of 2023, mainly driven by exports.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were subdued reflecting high interest rates, weak real wage growth and a sluggish housing market. Exports strengthened further in October, according to customs data, on the back of recovering semiconductor demand. Headline inflation rose to 3.8% in October due to higher energy and food prices, but core inflation has moderated, even though it remains well above the 2% target. The labour market has held up well, with a historically high employment rate and low unemployment.

Korea



Source: OECD National Accounts database; and Bank of Korea.

StatLink  <https://stat.link/3j2ytq>

Korea: Demand, output and prices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Current prices KRW trillion	Percentage changes, volume (2015 prices)				
Korea						
GDP at market prices	1 940.7	4.3	2.6	1.4	2.3	2.1
Private consumption	900.3	3.6	4.1	1.9	1.4	2.2
Government consumption	350.1	5.5	4.0	1.2	1.1	1.8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607.5	3.2	-0.5	1.6	1.6	2.0
Final domestic demand	1 857.9	3.8	2.6	1.6	1.4	2.0
Stockbuilding ¹	11.3	-0.1	0.1	0.0	-0.1	0.0
Total domestic demand	1 869.2	3.7	2.6	1.6	1.3	2.0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705.6	11.1	3.4	2.3	4.0	2.9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634.1	10.1	3.5	2.9	1.9	2.6
Net exports ¹	71.5	0.7	0.1	-0.3	0.9	0.1
<i>Memorandum items</i>						
GDP deflator	—	2.8	1.3	1.9	3.5	2.7
Consumer price index	—	2.5	5.1	3.6	2.7	2.0
Core inflation index ²	—	1.4	3.6	3.5	2.4	2.0
Unemployment rate (% of labour force)	—	3.6	2.9	2.7	2.9	3.1
Household saving ratio, net (% of disposable income)	—	12.6	10.8	12.4	13.1	13.1
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 of GDP)	—	-0.3	-1.8	-1.9	-1.7	-1.3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 of GDP)	—	50.9	54.8	58.4	62.8	66.2
Current account balance (% of GDP)	—	4.7	1.7	1.3	1.4	1.8

1. Contributions to changes in real GDP, actual amount in the first column.

2.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Source: OECD Economic Outlook 114 database.

StatLink  <https://stat.link/0acmuw>

A slowdown in global demand along with delayed recovery in China, notably for semiconductors, has dampened exports until recently. Rising global bond rates are set to push up domestic bond yields, increasing the interest burden for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Monetary policy remains tight, and fiscal policy is mildly restrictive

The Bank of Korea has kept the policy rate on hold at 3.5% since January 2023. The policy rate is assumed to remain at the current level until the second half of 2024, before being cut gradually to 2.5% by 2025 as inflation approaches the 2% target. The fiscal stance in 2023 is expected to be less contractionary than in the government's original consolidation plan, due to a massive revenue shortfall. The budget for 2024 is mildly restrictive despite contained expenditure growth, as tax revenue is assumed to remain sluggish. The projected contractionary fiscal stance in 2025 is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consolidation plan.

Growth is projected to rebound

Real GDP growth is projected to be 1.4% in 2023, strengthening to 2.3% in 2024 and 2.1% in 2025. Exports are set to pick up with a recovery in semiconductor demand. Elevated debt servicing burdens and inflation will continue to weigh on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in the short term, but demand should strengthen from the second half of 2024. Inflation will gradually moderate and reach the target in 2025. Further turmoil in global financial markets could hold back growth by raising the debt servicing burden for households and firms. Increasing geopolitical tensions may threaten Korean supply chains. Stronger-than-expected global growth and easing geopolitical tensions would improve the economic outlook for the export-dependent Korean economy.

Structural challenges require policy action

Against the backdrop of rapid population ageing, spending pressures are set to increase by approximately 5% of GDP by 2040 according to the OECD long-term model, driven by pensions and health expenditure. Fiscal consolidation is key to meet this challenge. The proposed fiscal rule, which caps the managed budget deficit at 3% of GDP, should be implemented to limit the build up of fiscal pressure. The pension reform needs to ensure adequate retirement income and fiscal sustainability. The government recently extended a temporary fuel tax cut until the end of 2023 to lower energy bills. It would be better to target vulnerable groups more directly, notably by addressing gaps and weaknesses in the social safety net, including eligibility and enforceability. Reducing the stringency of product market regulation by, for example, shifting to a comprehensive negative-list regulatory system and streamlining public support to SMEs would help to lower productivity gaps between large and small firms and reduce labour market dualism. Policies should also focus on reconciling career and family, including increasing the take-up of parental leave and enabling more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to boost female employment and fertility. To further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emission trading scheme should be aligned with climate targets, and incentives for clean electricity supply and energy savings should be enhanced.